



Implant supported bar overdenture in mandible

박진영 | 가천 의과 대학

하악 의치를 오랫동안 사용한 환자들의 경우 과도하게 흡수된 치조제로 인해 의치의 유지력 저하, 저작효율 감소, 연조직 자극, 유지력 없는 의치로 인한 골 흡수 가속화, 비정상적 습관적 하악위 등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공 사이에 2-5개의 implant를 식립하여 overdenture를 장착해 주는 경우 많은 장점이 있다. 연조직 자극이 줄어들며, 의치의 안정성 및 유지력 향상, 일관성있게 재현되는 중심위, 저작력 향상, 보철물 연장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고정성 임프란트 보철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의 implant overdenture의 장점으로서는 보다 적은 수의 implant 사용으로 인한 비용 대비 만족도 향상, 연조직부 보강으로 인한 심미성, 위생 관리 우수, 밤에 비기능적 운동의 방지를 위해 쉽게 제거될 수 있음, 보철물 제작 기간이 더 짧음, 고정성에 비해 수리가 쉬움 등이 있다. 기존에 의치를 사용하던 환자라면 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초기의 Branemark implant는 하악에서는 3~4개월, 상악에서는 5~6 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을 기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의 예측이 높아지자 좀 더 간단한 술식과 짧은 치유 기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Fixture를 식립할 때 abutment도 함께 연결하고 조기 하중을 주는 Branemark Novum이 1996년 소개되었고 98%의 성공률을 거두었다. 특히 안정성 없는 의치로 인해 implant overdenture를 계획한 환자들은 치유 기간 동안의 임시 의치의 불편함 때문에 이러한 조기 하중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증례는 66세 여성 환자로서 과도하게 흡수된 하악 치조제로 인해 좌측 이공 부위의 통증, 저작 장애, 잇몸의 잦은 상처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하악 이공 사이에 4개의 implant를 식립하여 1주 뒤 인상 채득하였고, 후방 연장부위에 ERA attachment를 갖는 bar overdenture를 제작하여 수복해 준 증례로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